

-다면서¹

(형용사와 ‘-았-’, ‘-겠-’에 붙어)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쓰여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하여 물음을 나타내는 어미

분류 어미(종결) **관련어** -는다면서¹, -다며¹, -라면서¹ **형태 정보** -다면서, -는다면서, -ㄴ다면서, -라면서 **◇-다면서**: 형용사 어간, ‘-았-’, ‘-겠-’ 뒤에 사용한다.
예 멀다면서, 예뻐다면서, 하겠다면서 **◇-는다면서**: ‘ㄹ’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서 사용한다. **예** 먹는다면서, 잡는다면서 **◇-ㄴ다면서**: 받침 없는

동사 어간이나 ‘ㄹ’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에 사용한다. [예] 간다면서, 만드다면서 ◇-라면서: ‘이다’, ‘아니다’에 사용한다. [예] 선생이라면서, 아니라면서, 의사라면서 [가표제어] -ㄴ다면서1

용법

1.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상대방에게 확인하여 물을 때 쓴다.

① 어제 많이 아팠다면서?

② 민지가 떠나겠다면서?

③ 김 선생 아들이 착하다면서?

④ 미선: 시간이 부족해 일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.

영민: 하는 데까지 해 보자.

미선: 그래도 잠깐만 쉬었다 하자.

영민: 시간이 부족하다면서?

①은 다른 사람에게서 상대방이 아팠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이다.

②, ③처럼 민지와 김 선생의 아들, 즉 듣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때도 쓸 수 있다. 또한 상대방이 방금 한 말을 확인하듯 다시 물어볼 때 쓰는데, 보통 아까 들은 말과 다른 말이나 행동에 대해 확인하거나 가볍게 따지며 반정거리는 느낌이 있다. 즉 ④는 미선이 시간이 부족하니 일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 놓고는 잠깐 쉬 것을 제안하자, 영민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다시 확인하듯 물어보는 상황으로 뒤에 반정거리는 투로 “왜 쉬자고 하니?”라고 덧붙여 말할 수도 있다.

결합 정보

1. ‘다면서’는 ‘다며’로 줄여 쓸 수 있다.

① 어제 많이 아팠다며?

② 민지가 떠나겠다며?

③ 김 선생 아들이 착하다며?

보충·심화

1. ‘다지’도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사실을 듣고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나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인 반면 ‘다면서’와 ‘다며’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도 물을 수 있다.

① (너는) 봄에 결혼했다면서?(○)

② (너는) 봄에 결혼했다며?(○)

③ (너는) 봄에 결혼했다지?(×)

④ 김 선생이 봄에 결혼했다면서?(○)

⑤ 김 선생이 봄에 결혼했다며?(○)

⑥ 김 선생이 봄에 결혼했다지?(○)